



ISSN 1599-7863

2012년 겨울 40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반민족광
사람들





Contents

책을 만들면서..

- 04 10년을 돌아보며
- 07 마음이 보태져 더 아름다운 보물들
- 10 터를 향한 구도자의 염원
- 고달사지쌍사자석등
- 13 역사의 흔적을 만나다
- 덕수궁 프로젝트
- 16 황토 담벼락 아래서
- 19 세 복숭아 이야기
- 22 터키에서 온 칼 한자루
- 25 양반춤이 그려진 도자 항아리
- 28 넝쿨 채 굴러온 행운
- 30 서암정사와 사성암
- 박물관회 소식**
- 33 2013 특설강좌 수강생 모집
- 33 박물관 후원하기
- 35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0년!
그렇게 보고픈 그대를
아직도 보지 못하여
지금도 보고파요...(水)

몰두와 망설임 사이
9년이 흘렀다.
일생을 두고 해야 할
공부의 양이 남은 것일까...(河)

누군가는 다 놓아버리면
자유롭다 했다.
그래도 잡고 있는 이유는
그녀들이 있어
행복하기 때문이다...(愛)

뜬금없는 원고 청탁을 단번에
OK 해주신 박물관 사람들.
역시 멋져!!...(리)

회지 한권마다
계절 하나씩 담고있다.
아주 진한 애정과 함께...(정)

세월이 쌓여서 추억이 남고
추억이 쌓여서 기록이 남았다
또 다른 10년, 그래서 기대된다...(藝)

진흙길과 눈길 위를 걷는 것은
힘들지만 흔적이 남는다.
첫 걸음, 흔적을 남기자...(眞)



「박물관사람들」이
어느새 40호에 이르렀다.
이번 호는 지난 10년간
글을 쓴 회원 열 분을
선정해 원고를 부탁했다.
그동안 애정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지에 글을 실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 2012년 12월 01일
발행처 | 국립중앙박물관회
발행인 | 김정태
기획 | 신병찬
편집위원 | 정미희·정혜라·조애경·최예정·하영남
진행 | 윤혜진
디자인 | theimageworks, (02)2268-5305
발행처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회
전화 | (02)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

10년을 돌아보며



2002년의 어느 포근한 겨울날로 기억된다. 박물관회에서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라며, 회지를 출간하려는데 도와달라고 했다.

나는 젊어서부터 조상이 남긴 옛것들을 좋아했지만 일상에 쫓돌리다가, 늦게서야 맺은 박물관과의緣으로 흔쾌히 힘을 보태기로 했다.

1977년에 시작되어 수천 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모임에서 이제야 회지를 내는 것이 晩時之歎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도 宿願을 과감히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신병찬 국장의 끝없는 박물관 사랑과 유상옥 당시 회장의 向念에서 나온 결실이었다.



첫 편집모임에 참석한 여성회원 여섯 분은 이미 전시실 자원봉사를 오래 한 분들이라,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었다. 우선 회지의 체제, 명칭, 지면배치, 발간횟수 등을 정하고, 매회마다 특집을 정해 집중 조명하기로 했다. 첫 호의 특집은 '화폐'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이기 때문에 외부에 내놓았을 때의 반응이 사뭇 신경 쓰였다. 독자들의 수준에 맞추는 일 이외에도, 철저한 교정을 거쳐야 했다. 그들은 편집 일은 물론 일반 기자들의 역할까지 분담하여, 원고청탁이며 현장답사까지 맡아 열성을 다했다. 이분들의 봉사열의가 정말 대단하여 일의 진행이 순조로웠다. 그렇게 처음 나온 것이 2003년 봄호이다. 그런데 원래 어떤 일이나 끝나고 나면 평판이 분분하기 마련이다. 회원들 간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왔으나, 우리는 좋은 충고로 생각했다.

그렇게 일 년여를 넘겨 자리를 잡고, 6호부터 지금의 편집진이 맡아 오늘에 이르렀다. 그 사이에 소소한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며 꾸준히 봉사하고 있는 분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 물론 뒤에서 주선해 주는 힘으로 추진되지만, 편집실 하나 없는 여건에서 처음 시작한 분들은 물론, 오랜 세월 한결같이 애쓴 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더구나 나로 보면 강의니 집필이니 핑계를 대고 몇 년 전부터 아예 손을 떼다시피 하고나니 그분들께 더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실력은 거의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 애뜻한 일은 처음부터 참여했던 진수옥씨의 타계였다. 선량한 표정으로 다소곳이 좋은 글을 썼던 착한 분이었기에 더욱 마음이 아프다.

돌아보면 10년은 짧고도 긴 세월이었다. 人生不滿未百年인데 우리 일생으로 보더라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경복궁 시절 뜰에 있던 정자나무 아래서 만발한 홍백의 배롱꽃을 바라보며 유물 얘기를 하던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40호라니, 살같이 흘러가는 세월을 절감한다. 사실 일반 잡지들도 10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고, 그 과정 또한 험난하다. 이는 독자층이 얇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견디지 못하기도 하고, 특수한 분야에서는 그 모임 자체가 이익집단이어서 경영상의 문제로 그만두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박물관사람들」은 이런 한계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이끌어 가는 사람들의 의지와 정성만 있다면 소싯것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우리에게 1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흐름이라기보다는 더 큰 뜻이 있다. 局外의 참여자로 있던 회원들이 차츰 눈을 뜨고 진정한 박물관의 주인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국립박물관들의 주인은 국민들이고, 그 중에도 우리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원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좀 더 가까이 있는 주인들이다. 박물관에서 일하는 분들은 고용되어 직무를 수행하다가 명예 따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분들이다. 그러나 우리 회원들은 자기의 뜻만 있다면 평생토록 유물을 감상하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여러 분야에서 기꺼이 노력봉사를 하고 있다. 회지에 관여하는 분들도 우리 박물관이 보다 좋은 박물관으로 발돋움하려면 때로는 쓴 소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회지는 회원들의 글과 의견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도 어려움은 있다. 우선 원고모집 공고를 내지만 제출되는 글의 수가 만족스럽지 않다. 한정된 지면 때문에 제출한다고 모두 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 박물관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것이 전문 분야여서 단순한 신변잡기나 일기 등속의 글을 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술적인 글로만 채울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다. 너무 전문적인 글만 실으면 논문집이 되어 버리고, 지나치게 일상적인 글만 실으면 잡문집이 되고 만다. 그래서 비전문적이면서도 전문적인 면이 강조되도록 애를 썼다. 아주 학술적인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유물들의 예술적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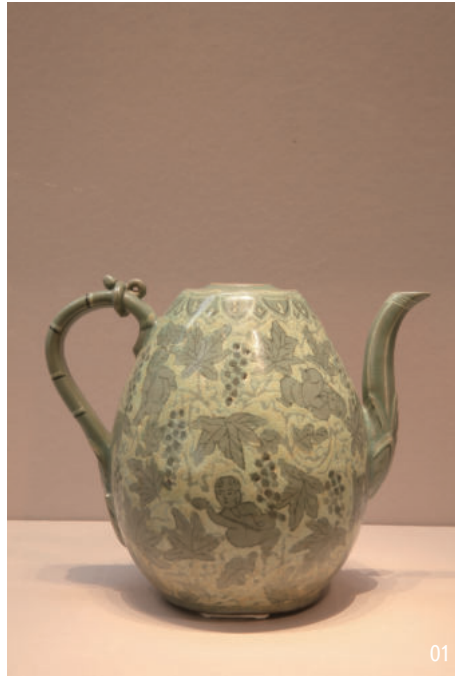


치와 역사적인 의의를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곧 박물관에 자주 드나드는 분들에게 일종의 안내서 역할 정도라고나 할까. 하지만 이 中庸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겪어보아야 안다. 원래 인간들의 속성이 不偏不黨에서 자유롭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가 회지를 발간하고 강의를 듣고서 전시실을 관람하는 것이 어찌면 雲耕月釣라 생각할지 모른다. 원래 무엇을 좋아하여 한결같은 열의를 가지고 몰입하다 보면, 그 속에 스며있던 아름다움이 흘러 나와 내 몸에 흠뻑 배게 된다. “지는 꽃잎 부슬비로 옷에 많이 떨어져서, 집에 돌아오니 맑은 향기 소매 가득[殘花隨雨點衣頻 歸來滿袖清香在]”이라 하지 않았던가. 列子도 십년을 공부하고서야 날아다닐 수 있었다고 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약간은 미쳐야 한다. 우리가 이 회지에 관여하는 동안에는 박물관이 내 집 같고, 유물들에 대한 향념이 一江春水向東流의 향수 같은 것이다. 나라의 힘이 강해도 고유한 문화를 향유할 줄 모르는 민족은 멸망하고, 특유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민족은 그 역사가 영원하다. 조상들이 남겨준 훌륭한 우리 문화유산을 소중히 보존하고, 그 가치를 究明하는 일에 미쳐서 一助했다는 의미가 있기에 더 자부심을 가진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국립중앙박물관은 영원할 것이고, 박물관회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 앞날을 바라보고 차곡차곡 벽돌을 쌓듯이 심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유물과 친근해지고 박물관을 사랑하며, 나아가 우리문화의 이해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마음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잘 잡아서 가치를 뽐기 시작한 『박물관사람들』이 앞으로 회원들의 열렬한 관심과 성원으로 북돋우어져서, 하늘을 가리는 巨木으로 400호, 4000호를 넘어 영원히 무럭무럭 자라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

2012년 11월 초
無額之茶室에서



마음이 보태져 더 아름다운 보물들

강의실 화면 가득 백자가 떠오른다. 달덩이 같은 도자기 위로 난초와 대나무가 자라고,
매화나무 꽃가지 사이로 풀벌레가 날아다닌다. 백자 위에 푸른색의
농담만으로 이토록 고요한 자연을 그려낸 자는 누구일까.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나지 않는다.



"얼마면 사시겠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 다시 묻는다.

"이백 억이면 사시겠어요?"

"못 사요."

"재산이 이십 조인데도 안 사시겠어요?"

"그럼 사지요."

누군가 대답하고 우리는 웃는다. 꿈조차 꿀 수 없는 대화에 웃음마저 허망하다.



— 종종 전재산을 기부하는 이들의 소식을 듣는다. 돈의 가치를 잘 모르는 나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평생 모은 도자기와 그림을 기증하고 돌아가신 이’의 소식 앞에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한다. 박물관 2층 뒤쪽은 기증관이다. 금요일 오후 박물관 수업이 시작되기 전, 나는 기증관에 들르기를 즐겨한다. 기증관에 들어서면 마치 누군가의 보물창고에 숨어 들어간 것같이 가슴이 뛰다. 옛여인들의 화장그릇이라든지 풀먹인 이불훅청을 두드리던 다듬이돌, 스티브 잡스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을 최고의 단순미를 보여주는 삼단문갑, 금을 두드려 펴서 만든 나비 꾸미개와 노리개, 화살촉과 낙랑군의 도장, 고서와 그림까지 온갖 것들이 전시돼 있어 박물관 전체를 다 둘러본 기분이다. 전시관 입구에 새겨진 기증자의 이력을 읽으며, 이분은 하필이면 왜 이것을 모았을까를 추리해 보기도 한다.

— 컬렉션은 기증자의 영혼이다. 그들은 돌아가셨지만 컬렉션에는 그들의 열정과 사랑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래서 기증관의 공기는 어느 전시실보다 따뜻하다. 도자기를 공부하는 중이니 자연히 박병래관과 최영도관, 이흥근관에 오래 머무르게 된다. 기증된 작품만으로도 우리나라의 도자사가 한눈에 보인다.

— 「청자포도동자무늬주자」 속의 동자는 포도넝쿨 속에 숨어 개구진 웃음을 지으며 나를 보고 있었다. 알알이 영글어 가는 포도송이와 거칠거칠하게 살아있는 포도 잎사귀의 그늘이 동자의 머리 위에 작은 그늘을 지어주고 있었다. 그런가하면 그 옆의 「청자연꽃무늬병」은 시대를 뛰어넘는 최고의 디자인이 아닌가. 겹치레를 모조리 제거하고 남은 몸통과 긴 목, 거기에 살짝 엮은 고리라니... 게다가 상감으로 처리된 연꽃무늬는 투명한 몸통 속에 은근하게 살아있다.

— 도자기는 높은 불 속에서 부피가 감소한다. 갈라지고 터지기도 한다. 이 청자를 만든 사람들은 머리에 떠오른 디자인에 어떤 과학적 계산을 더해서 도료를 섞고 흙을 빚고 불 조절을 해서 이러한 청자를 구워낸 것일까. 방을 건너간다. 목이 길어야 미인이라는데 목이 짧은 병도 예쁘기만 하다. 「분청사기모란무늬편병」 두 작품이 나란히 앉아 있다. 사생대회가 열리던 덕수궁엔 아기 얼굴만큼 튼실한 모란꽃이 무성했다. 마치 그때의 모란처럼 분청사기에 상감된 잎사귀는 거칠게 살아있다. 천 도가 넘는 불에 구워졌는데도 너무나 싱싱하다. 고급 흙으로만 만들어야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건 아니다. 서민이 사용했던 토기에도 장인의 혼은 살아있다. 도무지 토기라고 믿을 수 없을 만치 얇고 매끄러운 살결의 조롱박 모양의 주전자는 곡선의 아름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 단순한 주전자에 과분한 꾸밈을 얹은 토기주전자는 허리가 끊어질 듯 낭창거린다.

— 전시실엔 마침 이흥근 선생의 32주기를 기리는 꽃바구니가 놓여 있다. 선생이 돌아가신 넉 달 후, 성북동 자택에서는 30여 년 동안 모아온 문화재 4941점이 박물관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소품 한 점이라도 빠뜨릴세라 유족들은 진땀을 흘리며 고인이 모은 것을 찾아내고, 학예관들은 정성스레 트럭에 옮겨 실었다고 옛신문은 전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무리 아버지의 유언이 엄했다 해도 연꽃병쿨이 상감된 분청사기 한 점, 강세황의 그림 한 점 짚은 숨겨두고 싶지 않았을까. 내 마음이 다 애절해진다.

— <백자의 사람 : 조선의 흙이 되다>란 영화를 보았다. 1914년 아사카와 타쿠미란 일본 청년이 조선으로 온다. 조선총독부 입업시험소 직원인 그는 첫눈에 조선의 백자와 소반에 반한다. 백자를 비롯한 예술품이 헐값에 팔려나가는 걸 안타깝게 여긴 다쿠미는 조선의 민예품과 도자기를 수집한다. 밥사발이며 술병, 무심하게 걸려 있던 그림들을 모아 조선민족미술관을 개관한다. 『조선의 소반』이란 책까지 쓰고 조선잣나무 배양에 성공한 후 급성폐렴으로 숨진다. 그는 조선인들의 상여에 매여 망우리에 묻혀 조선의 흙이 되었다. 우리말과 일본말이 뒤섞인 화면은 어수선했지만 그가 애써 모은 미술품이 오롯이 우리 땅에 남겨졌다는 데 마음이 울컥했다.

— 문화재란 한 사람이 소유하기엔 너무 큰 정신이다. 이흥근 선생이나 타쿠미와 같은 이들은 그 정신을 나누는 넓고 선한 마음을 가졌다. 도자기를 공부하면서 새삼 겸손한 마음을 배운다. 🍷

- 01. 청자포도동자무늬주자, 국립중앙박물관
- 02. 영화 <백자의 사람> 한 장면
- 03. 청자연꽃무늬병, 국립중앙박물관





터를 향한 구도자의 염원

- 고달사지쌍사자석등

글 정은정_회원

우리 문화재는 유난히 석조물이 많다. 그 몇 점들이 박물관의 가을벌을 이고, 따로 또 같이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서있다. 제각각 무뚝뚝한 그들의 태도에서 한 발짝 물러서며 7년 전 특설강좌 강의를 떠올린다.

돌을 닦은 한국인의 속성과 심성은 석조미술과 태생적 인연이라는 인상적인 강의였다.

야외전시장을 둘러보다 유난히 시선을 끄는 한 친구를 만났다. 알 수 없는 외로움이 묻어나는 그 이름은 고려 전기에 만들어진 「고달사지 쌍사자석등[보물282호]」이다. 박물관 개관 당시 전시실 1층 복도에서 관람객들을 구경하던 쌍사자의 낮선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고 그저 묵묵하기만 할 뿐이다. 어느 날 문득 사라져 궁금했던 녀석을 만났건만 반가움에 앞 선 이 생경함은 무엇인지... 답사를 통해 불전 앞에서 익숙하게 보아 오던 석등이 등불을 안치하던 공양구를 넘어서 내게 다가오긴 처음이다.

불가에선 모든 고통의 원인이 어리석음(어둠)에서 비롯된다. 불을 켜는 행위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깨달음에 다가가는 상징적인 의미이자, 으름 공양이라 할 수 있다. 석등은 석탑과 마찬가지로 백제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통일신라시대에 꽃을 피웠다. 쌍사자석등은 통일신라시대에 시작된 석등 건축의 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매우 독창적인 모습이다. 통일신라 때 「법주사 쌍사자석등[국보5호]」, 「중흥산성 쌍사자석등[국보103호]」, 「영암사지 쌍사자석등」이 만들어졌다. 이 석등에는 화사석을 받치며 서 있는 사자가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다. 조선 초에는 특이하게 외사자석등인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정혜원용탑앞 사자석등」과 앉은 채 고개를 쳐든 단순한 모습의 「회암사지 쌍사자석등」이 있다. 사자는 부처를 상징하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져 왔지만, 상상속의 사자를 종교적인 교리에 부합하는 예술적인 아이디어로 살려낸 솜씨는 감탄을 자아낸다.

고달사 부도 앞에 팔각 지대석을 남겨두고 온 「고달사지 쌍사자석등」은 웅크리고 앉아 앞발을 뻗고 있는 독특한 모습이다. 안상(코끼리의 눈)이 2좌씩 조각된 하대석 위에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듯 사자 한 쌍이 앉아 있고, 등 뒤엔 구름무늬를 한 가득 이고 있다. 중대석은 다양한 종류의 석등을 응용한 것처럼 보이며 불을 높이 비추어야 하므로 부도에 비해 높다. 소담스럽고 큼직한 양면(연꽃이 위로 향한모양)이 새겨진 상대석 위에 불을 밝히는 팔각형의 화사석이 오른다. 위쪽을 뚫어 지붕돌을 얹었기에 공기가 위로 통하여 불꽃을 곳곳이 세워준다. 사자와 구름을 통해 천상세계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 쌍사자석등을 보며 지혜로운 사자가 이고 있는 구름 속에서 하늘을 찾는다.

석조 미술은 주변을 아울러 함께 보는 안목이 필요하기에 백 번 듣는 것 보다 한 번 보는 답사가 중요하다.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장엄한 조형물뿐 아니라 작은 장식들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상징성을 가진다. '왜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교적 세계관과 부처님을 향한 구도자들의 염원을 간파한다면 단순히 잘 만든 평범한 석조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고달사지 쌍사자석등」은 고달사지 부도 앞에 쓰러진 후 개인의 손에서 예식장 뒤뜰로,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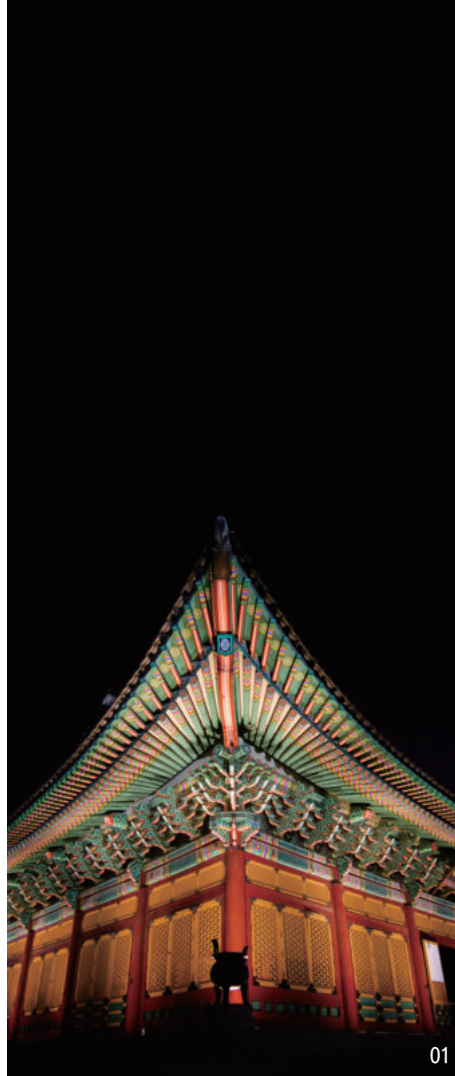


03

- 01. 고달사지쌍사자석등, 높이 2.43m, 보물 제282호, 국립중앙박물관
- 02. 회암사지쌍사자석등, 높이 2.5m, 보물 제389호
- 03. 고달사지쌍사자석등(부분)
- 04. 고달사지 부도, 높이 3.4m, 국보 제4호, 경기도 여주군



경복궁 경희루 옆에 머물다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동, 지붕돌을 복원한 후 실내 전시를 거쳐 현재 야외 전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다. 크고 완벽한 부도를 향해있던 쌍사자의 양증맞은 뒤탄에는 이제 무심한 나무숲이 독차지한다. 구석진 곳에서 바라본 뒤탄의 처연함은 빛진 자의 미안함인지도 모른다. 가족들이 굶어죽는 줄도 모른 채 불사에 혼을 바친 전설 속 '고달'이나 호방한 기상과 장엄한 기운을 간직한 고달사는 떠돌이 쌍사자석등의 외로움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쌍사자석등을 기다리는 고달사부도 앞이라면 쌍사자의 지혜가 빛을 발하고 하늘의 기운을 넘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는 큰 욕심일까? 🍁



01

역사의 흔적을 만나다

- 덕수궁 프로젝트

글 김문숙 _ 회원

서울이란 도시의 매력 가운데 하나는 바로 궁궐이다.
4대문 안 도심 한복판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그리고 종묘까지.
담장 안에 들어서면 언제나 고즈넉한 공간을 허락해 주는 대도시의 숨구멍 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궁궐마다 어울리는 계절이 있는 것 같다.
어울리는 계절이라기보다는 그 계절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02



- 01. 02. 덕수궁 중화전, 보물 제819호
- 03. 이수경, 석어당 <눈물>, 2012
- 04. 07. 김영석, 석어당 <Better Days>, 2012
- 05. 서도호, <함녕전프로젝트-동온돌, 덕수궁 함녕전>, 2012
- 06. 하지훈, 덕흥전 <자리>, 2012

경복궁의 봄날은 자경전 담 옆의 살구꽃이 화사하게 피었을 때 절정을 이룬다. 아름답리 살구나무에 핀 꽃은 주변을 환히 밝혀준다. 신록을 지나 무성한 초록이 뒤덮였을 때 어울리는 곳은 역시 창덕궁 후원의 부용지나 애련지가 아닐까? 한겨울 소담스럽게 눈이 내리면 종묘 정전 뜰에 서고 싶다. 서월랑의 계단 위에서나 월대 아래 공신당 쪽에서 바라보는 엄숙하게 가라앉은 종묘의 모습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덕수궁 하면 아무래도 가을날 그것도 흐리고 바람 부는 쓸쓸한 가을날이 떠오른다. 여기저기 잘려나간 덕수궁 경내의 모습도 그렇지만, 여기에 깃든 역사 역시 이런 날씨와 어울리나... 그리하여 덕수궁보다 '덕수궁 돌담길'이 더 유명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하는 화창한 가을날 덕수궁을 찾았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덕수궁 프로젝트>를 보기 위해서였다. 임진왜란 이후 선조의 임시 거처로 시작하여 경운궁이라는 이름을 얻고, 인목대비의 유폐와 광해군의 폐위, 인조의 즉위를 지켜본 궁궐은 오랜 세월 잊혀진 공간이었다. 27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고종은 정동 언덕에 있던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 간 머물다가 경복궁이 아닌 경운궁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한제국 선포, 을사늑약, 강제 퇴위, 한일합방으로 이어지는 숨가쁜 세월을 이곳에서 겪은 고종은 결국 1919년 함녕전 동온돌에서 승하한다. 고종 퇴위와 함께 경운궁이라는 이름도 '덕수궁'으로 바뀐다.



「함녕전 프로젝트 - 동운돌」이라는 서도호의 작품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한다. 강대국들의 탐욕 앞에 노출된 약소국의 군주 고종의 흔적을 정갈하게 도배한 온돌방에 깔린 보료 세 채와 붉은 깃의 녹색 비단 이불 세 채로 표현한 것이다. 고종을 모시던 궁녀들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 말년의 고종은 곁을 일찍 떠난 두 아내 명성황후와 엄비를 이런 방식으로 그리워했을까? 무능력하고 유약한 왕으로 평가 받는 고종의 고뇌와 인간적 외로움을 떠올리게 하는 ‘방’이었다.

함녕전과 나란히 있는 덕홍전에는 가구 디자이너 하지훈이 만든 의자가 하나 가득 놓여 있었다. 크롭으로 코팅된 의자는 현대적이다 못해 미래적이었지만, 실제 앉아 보니 상당히 편했다. 의자 표면에는 우물천장의 화려한 봉황과 벽 윗부분의 금빛 봉황, 오얏꽃이 어른어른 비치고, 흐느끼는 소리, 그릇 부딪치는 소리, 낮은 웃음 소리가 들려온다. 명성황후의 魂殿인 ‘경효전’ 자리에 들어선 덕홍전의 내력을 감안하면 과거와 현재가 이 장소에서 이런 방식으로 만난 듯하다.

석어당은 단청을 하지 않은 이층집으로 가끔 덕수궁을 찾았을 때, 이곳 마루에 앉아 가만히 마룻바닥에 손을 대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다. 월산대군의 집이었던 석어당은 선조가 의주 피난에서 돌아와 자리 잡은 곳이었으며, 인목대비가 유폐되었던 곳도 여기였다. 석어당의 전시는 대비와 옹주라는 신분이었지만, 기쁜 날보다는 슬픔과 회한의 날이 많았을 인목대비와 덕혜옹주가 주인공이었다. 동쪽 방은 8살까지 이곳에서 아버지 고종의 사랑을 담뱃 받으며 자랐던 옹주의 방으로 꾸며졌다. 화조도 병풍, 보료와 방석, 나지막한 가구들, 화사한 수북 무늬 가리개 등 누가 보아도 따사로운 풍경이다. 그러나 서안 앞의 방석에 놓인 조그만 한복 한 벌은 주인의 부재를 상징하는 듯하다. 방 한 칸에 설치된 비단 스크린에서 흘러가는 덕혜 옹주의 행복했던 유년 시절 사진들도 서글픔을 복돋운다. 서쪽 방에는 이수경의 ‘눈물’이 빛나고 있다. 수천 개의 LED 조명이 뿜어내는 강렬한 빛 때문에 정확한 형태를 알기 어려운 이 조각은 ‘눈물’로도 ‘다이아몬드’로도 보인다. 대비와 옹주를 비롯한 슬한 궁궐 속 여인들의 운명을 표상한 것이라는데, 한번 보면 절대 잊지 못할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중화전은 덕수궁의 정전으로 이 궁궐의 운명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전각이다. 행각은 동남쪽 모퉁이에 겨우 흔적만 남았을 뿐이고 사방이 트여 있는 정전 마당의 품계석, 답도의 용 조각, 황제의 색 노란색으로 칠한 창호는 ‘제국’을 선포했지만 나라의 운명은 점점 기울어 가던 시절을 그대로 드러낸다. 여기에 류재하의 ‘시간’이라는 미디어 작품이 투영되는데, 장중한 음악을 배경으로 기왓장이 떨어지고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 이어지는 화염과 전각의 소실, 침묵과 암흑, 그리고 재건 장면은 중화전의 역사이자 서글픈 우리 근대사를 재현했다.

깊어가는 가을밤에 가슴이 먹먹해지며 온갖 상념과 다짐이 교차한다. 외면하고 싶었던 역사를 담은 궁궐, 덕수궁이 현대 미술과 만나 새로운 공간으로 태어나고 있었다. 🍁

황토 담벼락 아래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등을 의지할 수 있는 벽 앞에 서거나 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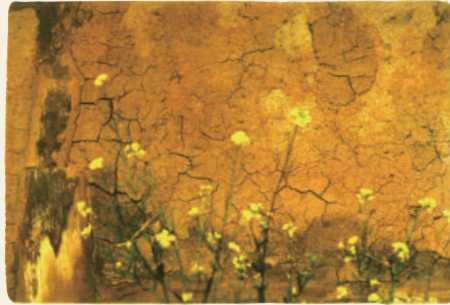
담벼락은 겨울 찬바람을 막아주어 우리는 그 곳에서 따스한 햇볕을 흠뻑 쬐 수 있고, 비가 올 때는 처마 밑에서 비를 덜 맞을 수도 있다.

담벼락 밑은 아낙네들이 모여앉아 집안일도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쉼터였고,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들이 답답할 때 담배를 피우며 마음을 정리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글·사진 임명희_ 회원





_ 초가지붕 아래 황토를 바른 담벼락 옆은 내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놀이공간이었다. 어린 시절 나는 황토벽에 창을 내어 창호지를 바른 봉창 아래에 기대어 앉아서 흙바닥에 돌맹이로 그림을 그리거나, 담벼락 아래서 자라는 풀들을 따서 바람에 날려 보내며 날아가는 풀잎을 따라 뛰어다니곤 하였다. 비가 오는 날은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낙숫물이 그리운 동그라미가 사라지는 것을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었다. 지루한 여름장마 중 반짝 해가 나면, 처마아래 토방 밑 돌 틈 언저리에는 어느새 오색의 키 작은 채송화가 무리지어 꽃잎을 열었다. 갓 꽃봉오리를 연 그 순간의 깨끗하고 귀여운 꽃잎들은 어린 나에게 환상적인 아름다움이었다. 붉은 빛을 띤 황토벽은 추운 겨울 아침에도 햇살을 받으면 따뜻한 황금빛으로 빛났다. 처마 끝에 달린 콩콩 언 고드름을 따려고 키가 작은 나는 몇 번이고 뛰어오르다가 지쳐, 결국은 대나무 장대로 고드름을 건드려서 떨어뜨린다.

_ 언니들이 학교에 가고 엄마가 시냇가에 빨래를 간 사이, 황토벽에 기대어 쪼그리고 앉아서 긴 놀이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야했지만, 그 담벼락은 일단 나의 자유로운 공간이었다. 어둡고 좁은 방 안에 있는 것보다 환하게 시야가 트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으니 누가 간섭할 사람도 없었다. 그렇다고 어린애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놀 용기도 없었으니, 우리 집의 담벼락 밑은 나만의 치외법권(?)의 공간이었다고나 할까.

_ 세월이 흘러 耳順에 가까워진 어느 날에, “나의 무의식의 바닥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을까? 어떤 기억의 실타래의 끝을 잡기만하면 가물가물한 기억들을 정확히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겨울날 양지바른 담벼락에 기대어 놀던 그 어린 아이가 무심히 바라보았던 황토벽의 불그레한 색감과 바슬바슬한 촉감이 손끝에 전해지면 그 시절로 다시 돌아 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황토에 짚과 물을 섞어 발로 짓이긴 다음에, 대나무로 틀을 엮은 벽에 진득진득하게 바르면 꾸덕꾸덕 마르면서 모세혈관처럼 균열이 간다. 바른 이의 손맛이 그대로 전해지는 황토집은 이제는 시골에서도 찾기가 어렵다. 그런 흙집의 벽은 다듬지 않은 통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격자구조의 틀로 만들어졌다. 흙벽 옆에서 자생하는 잡초들은 흙벽을 지탱하고 있는 통나무를 프레임 삼아 벽화처럼 각자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황토벽 아래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벽과 어우러져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어린 생명들의 울타리가 되어 어머니처럼 찬바람을 막아주며 감싸고 있었다. 오래 된 시골집의 황토벽 앞에서 나는 그 시절의 어머니 모습을 떠올렸다.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가시다가,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들고 달려오는 나를 바라보던 어머니의 옛 모습을 나의 그림자로 만들어서 벽에 비추어 보기도 하였다.

이제 낡은 황토벽에는 흙이 갈라지는 통증과 함께 늘어난 상처들이 싹틔줄처럼 퍼져있다. 사람이 늙어가듯이 주름지고 부스러져 가는 오래된 황토벽은 어머니의 모습과 같았고 머지않아 나 자신의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황토벽에 시간이 그려낸 그림은 자화상처럼 자연의 벽화가 되었다. 그리고 그 벽화는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편안한 통나무의 프레임 안에서 겨울 햇살을 받으며 따스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



세 복숭아 이야기

글 서유미 _ 회원

2010년 봄.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넘어 가려고 피레네 산맥을 향해 달리는 길에 복숭아 과수원을 지나가게 되었다. 땅이 넓은 나라라서 그런가. 차가 계속 달려가는데도 한참 동안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넓은 복숭아 과수원이 이어지고 있었고, 거기엔 분홍색 복숭아꽃이 만발해 있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나는 몇 번이나 이렇게 외쳤다.

"아까워, 아까워! 여긴 여름에 와야 하는데!"



그렇다. 나는 복숭아꽃도 좋지만 그보다는 '복숭아'가 훨씬 좋다. 복숭아는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다. 그래서 내가 상상하는 무릉도원은 복숭아꽃이 만발한 곳이라기보다는 탐스러우면서도 끝이 뾰족한 복숭아가 주렁주렁 달린 곳이다. 복숭아가 맛있어서 좋아하는 데서 더 나아가 언제부터인가, 복숭아에 대한 전설과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복숭아를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벽장처럼 여기게 되었다. 소설 속에서 벽장이 인간 세계와 나니아를 잇는 통로인 것처럼 나에게도 복숭아가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매개체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시장에 갔는데 색깔 좋은 복숭아가 쌓여있으면 보는 것 만으로도, 물론 먹으면 더더욱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니 복숭아 연적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다. 오랜 세월 썩지도 변하지도 않고 어떤 것들은 실제 복숭아보다 더 예쁘기까지 하니까.

가끔 박물관 전시실에 들어서 혹시나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나 도자가 이번엔 나오지 않았을까 둘러보곤 한다. 운이 없어서인지 국립중앙박물관의 복숭아 연적은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섭섭했다. 그러다 지난 여름 <미국, 한국미술을 만나다> 특별전에서 새로운 복숭아 연적을 만났다. 필라델피아에서 온 19세기 조선 복숭아, 동채로 칠한 빨간색 부분이 예뻐서 자꾸 눈길이 갔다. “빨간 게 참 맛있게 생겼구나. 하지만 아까워서 차마 못 베어 먹겠다.”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 생각이 났다. 서왕모의 蟠桃園을 지키랬더니 자기가 다 따먹어버리고 불로불사의 몸이 된 손오공.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복숭아를 먹을 때면 손오공 이야기를 곧잘 한다. “내가 손오공이라도 다 따먹었을 거야. 불로불사가 아니라 보통 복숭아라도 어떻게 안 먹고 견딜 수 있겠어?” 그런데 이전 아까워서 못 먹겠다는 말도 하게 되니 갈수록 욕심이 없어지는 것인지 더 욕심꾸러기가 되어가는 것인지 모르겠다.

복숭아 속에 벌레가 몇 마리 있을 때 가장 징그러울까? 답은 반 마리. 복숭아를 밤에 먹으면 예뻐진다는 속설은 복숭아에 워낙 벌레가 많이 꼬여서 생겼다고 한다. 영농기술이 발전한 요즘도 복숭아 먹을 때 벌레를 종종 보게 되는데 농약이 없었던 옛날에는 맛있는 복숭아를 먹기 위해 벌레까지 같이 먹는 것쯤은 감수해야 했을까? 맛있는 과일과 곤충. 곤충이 아무 짓도 안하고 붙어있지만 해도 인간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지는 조합이다. 그러나 새하얀 복숭아에 파란 매미가 붙어있는 「청화백자진사채복숭아연적」을 볼 때면 불쾌하기는커녕 입 꼬리가 올라가게 된다. 실은 처음 봤을 때 복숭아벌레가 붙어있는 줄 알고 옛날 사람들도 참 장난기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매미인걸 알고 혼자서 조금 머쓱했던 기억이 난다. 복숭아 연적에 왜 매미가 붙어있는 걸까? 아마 선비가 쓰는 연적이니까 군자의 상징인 매미를 붙였는지도 모르겠다. 만약 이 연적에 매미가 없다면 어떨까 하는 쓸데없는 궁금함에 사진보정 프로그램으로 매미를 대충 지워보았다. 복숭아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웠다. 그래도 매미가 붙어있는 것이 조형적으로 더 좋아 보이고 뭔가 이야기가 숨어있는 것 같아서 재미있어 보인다. 게다가 대부분의 곤충들처럼 매미의 겹눈은 실제로 보면 새카맣기만 해서 아무 감정이 없어 보이는데 이 매미는 사람처럼 눈동자를 그려놓으니 마치 만화 속 익살스러운 캐릭터 같이 뾰뚱거리며 만담이라도 한바탕 해줄 것 같다.



예쁜 것으로 치면 보물 1025호 「청자복숭아연적」을 빼 놓을 수 없다. 이 연적에서 관능미를 느낀다는 사람도 있던데, 나는 좀 별나게도 이 연적을 보면 열두 살 때쯤 처음 읽었던 펄 벅의 대지에 나오는 오란이 생각난다. 어린 마음에도 점점 부자가 되어가면서 조강지처인 오란을 홀대하는 왕룡이 미웠고 오란은 측은했었다. 그에 대한 보상심리였는지 왕룡이 황 부잣집에서 오란을 데려올 때 서로 수줍어하는 것을 묘사한 부분이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었다. 바로 그 부분에서 복숭아가 등장한다.

성문에 다다르자 왕룡은 조금 망설이다가 멈춰 서서… 작고 푸른 복숭아 6개를 샀다. “이거 먹어”, 그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 왕룡은 다시 한 번 그녀를 돌아다보았다. 오란은 조심스럽게 그 한 개를 깨물어 먹고 있었다. 그러나 왕룡이 자기를 보는 것을 알자 그녀는 복숭아를 손으로 가리고 입도 놀리지 않았다.

푸른 복숭아. 여러 해 동안 오란이 먹은 복숭아는 꽃과일이라서 신맛이 많이 났을 거라 생각했는데 우연히碧桃라는 것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푸른 복숭아에 대해 찾아 보니 겉은 푸르스름한데 속은 빨간 복숭아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란이 먹은 복숭아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는 것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한결 안심이 되면서 마음속 왕룡에 대한 섭섭함도 약간 덜어졌다. 이왕이면 오란이 먹은 그 작고 푸른 복숭아 여섯 개가 이 연적처럼 예쁘고 별레 먹지 않은 것이었으면 좋겠다.

지난 봄 아버지 산소를 보수하기 위해 순천에 있는 선산에 갔다가 불일은 뒷전이 되고 근처 야산에 가꾼 복숭아 과수원에 핀 복숭아꽃에 정신이 팔려버렸다. 구름 낀 날 약간 흐린 시야 때문인지 멀리 보이는 그 꽃들은 마치 안건의 「몽유도원도」 속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복숭아꽃을 묘사한 빛바랜 분홍색 점들 같았다. ‘복숭아꽃이 흐르는 물에 아득히 떠내려 가니 인간 세상이 아니라 별천지라네[桃花流水杳然去 別有天地非人間].’ 웬일로 학창시절 한 문시간에 마지못해 배웠던 한시 몇 구절이 용케도 머릿속에 남아 있다가 흘러나왔다. 그 정도로 좋았을까? 나이가 들면 꽃이 좋아진다는데, 내가 그렇게 나이가 들었나? 손오공처럼 복숭아 먹고 불로장생은 못해도 조만간 작은 복숭아 연적 하나 마련해 곁에 두고 마음만이라도 불로장생 해보겠다고 욕심을 부려본다. 🍑

- 01. 「낭원투도」, 김홍도, 49.8×102.1cm, 간송미술관
- 02. 청화백자진사채복숭아모양연적, 높이 10.8cm, 리움
- 03. 백자청화동채복숭아모양연적, 높이 11.7cm, 필라델피아미술관
- 04. 청자도형연적, 높이 8.6cm, 보물 제1025호, 리움



터키에서 온 칼 한자루

글 박진원 _ 회원



처음 <터키 문명전: 이스탄불의 황제들> 전시회 포스터를 보고 술탄의 보물을 전시하는구나 했었다. 막상 가보니 반만 맞은 생각이었다. 터키의 역사에는 히타이트 왕도 있고 동로마제국의 황제도 있었고 터키의 술탄도 있었다. 히타이트는 너무 오래전이고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잊고 있던 동로마제국의 역사가 생각났다. 550여 년전 기독교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후 기독교의 존재를 없애기 위해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꿔버린 술탄 메메드 2세의 목적이 나에게도 바로 적용된 것이다.

— 사업상 출장으로 이스탄불을 가볼 기회가 두 번 있었다. 갈 때 마다 아야소피아(성 소피아 사원)를 방문하였는데 두 종교의 문화가 합쳐진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문화가 한 건물 안에 있고, 오스만제국 멸망 이후 이슬람 사원을 박물관으로 바꾸었다. 두 문화를 나라 전체의 문화적 유산으로 바꾼 터키의 국부 케말 아타튀르크의 혜안을 느낄 수 있는 장소였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콘스탄티노플과 이스탄불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정수를 볼 수가 있었다. 또한 너무나 다른 이 두 문명의 정점을 함께 가진 이스탄불이란 도시의 매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이번 전시회에 온 유물들 중에서 동로마제국 시대의 것은 새삼스럽게 터키인들의 뿌리가 일부분은 기독교 제국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함으로써 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는 영토를 가지게 된 오스만제국의 점령자와 피점령자의 역사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전시의 가장 흥미로운 점인 것 같

았다. 노쇠한 비잔틴제국의 심장에 마지막 칼을 꽂은 술탄 메흐메드 2세의 모습이 담긴 메달을 보면서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던 이스탄불의 구시가를 바라보았을 그를 상상해 보았다. 술탄의 오스만제국 군대는 쇠사슬로 바다를 봉쇄한 비잔틴제국 군대에 맞서 배를 산으로 옮겨 적의 허를 찔러 이 도시를 점령했다고 한다. 배를 어찌 옮겼나 싶을 정도로 결코 낮은 높이의 산이 아닌데도 500여 년전 오스만제국 군대는 배를 산으로 넘어 옮기는 엄청난 작전을 통해 비잔틴제국을 멸망 시켰다. 그런데 이 동전의 설명을 보니 술탄의 초상을 그린 사람이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화가 젠탈레 벨리니였다. 1479년이니 비잔틴제국이 멸망하여 콘스탄티노플이란 이름은 사라지고 이스탄불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도시가 그 위세를 떨치던 시기일 것이다. 불과 25년이 지난 다음 술탄은 이탈리아의 화가를 불러 자신의 초상을 그리게 하고 동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동전 뒷면에 자신이 지배하는 영토를 상징하는 세 개의 왕관을 그려 넣었다. 그 왕관의 하나가 이스탄불을 상징한다.



01

— 그 당시의 이슬람교나 기독교가 지금보다 더 유연한 사고와 행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이슬람과 서방국가가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비잔틴제국을 멸망시킨 오스만제국의 술탄이 오히려 더 너그럽게 느껴지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유물들이 어떤 것은 유럽 것 같고 어떤 것은 중국이나 심지어 우리나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만큼 이스탄불의 술탄들은 동서양 문화의 정수를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든 진정한 세계 제국의 주인이었다. 술탄이 소유했던 나전 서랍함이나 코란 받침은 설명없이 전시 되었다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라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흡사한 느낌이다.

— 모든 유물들 중에 가장 나의 관심을 끈 것은 술탄 쉴레이만 1세의 칼이었다. 시오노 나나미의 역사소설 로도스섬 공방전을 읽고 나서 500여 년전 전쟁터였던 성채를 보고 싶어 몇 년 전 직접 로도스섬을 방문했다. 1522년 이슬람 군대가 점령했던 때와는 많이 변형 되긴 했지만 소설에 나오는 장면들을 상상하며 로도스 섬을 걸어 다녔다. 성채 곳곳에서 거대한 이슬람 군대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성 요한 기사단과 주민들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듯 했다. 필사적인 저항에도 결국 기사단은 항복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술탄은 그들이 명예롭게 섬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함으로써 섬의 주인은 오스만제국으로 바뀌었다.

— 그때 이슬람군을 이끌던 술탄 쉴레이만 1세가 소유했던 칼이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한 느낌이었다. 물론 이 칼의 제작연대로 볼 때 로도스섬을 함락한 후에 만든 것이어서 그 당시 전장에 차고 나간 칼은 아니다. 하지만 소설을 읽고 현장을 가서 보

며, 내가 상상했던 역사적 인물이 소유했던 물건을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 박물관을 좋아하는 이유이다.

— 유물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가치를 갖는다. 하찮은 도자기 하나일지라도 나의 직계 조상이 직접 사용하던 것이라면 국보로 지정된 청자만큼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국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고 객관적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마음속의 국보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번에 터키로부터 온 칼 한 자루를 보면서 유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만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인연을 만들려면 역사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그것을 인연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나같은 경우는 시오노 나나미의 소설이 발단이었고 이스탄불과 로도스 섬을 내가 직접 가보았다는 것이 한층 더 감동으로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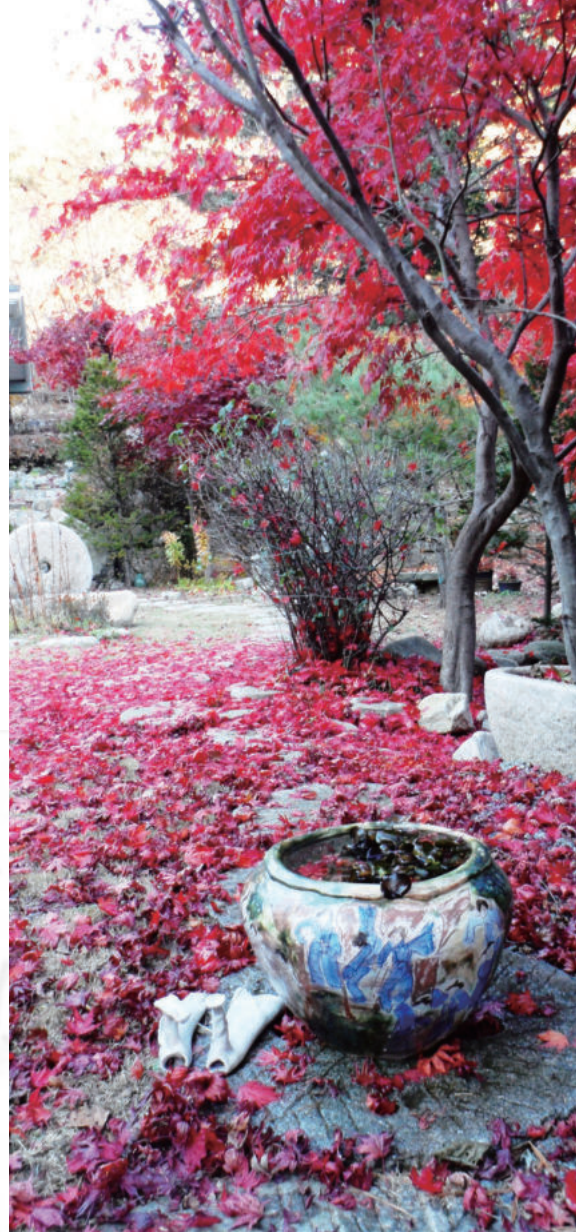
— 우리 박물관에도 찾아보면 개인적인 인연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술탄의 칼에서 받은 감동을 우리 박물관에 있는 유물에서도 느껴보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겠다. 또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감동을 받을 수 있게 역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방법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했다. 거기에 느끼기까지 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느끼려면 애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애정은 인연에서 온다. 유물에서 인연을 찾는다면 박물관에 오는 것이 더 즐거울 것 같다. 🍷

01. 술탄 쉴레이만 1세의 칼, 길이 92cm, 톱카프궁박물관



양반춤이 그려진 도자 항아리

글·그림 권은성 _ 회원



단풍나무를 유난히 좋아하는 남편 덕에 청평집 어귀는 멀리서부터 커다란 붉은 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했다.

잎들이 떨어져 잔디밭은 붉은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았다.

한 칸에 양반들을 그려 넣은 도자항아리가 단풍잎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마치 붉은 카펫에서 춤을 추고 있는 듯 했다.

— 지난 봄이었다. 같이 그림을 그리던 선생님이 문학기행 동참을 권했다. 낯선 사람들 틈에서 버스를 타고 정지용 생가를 방문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까지는 그럭저럭 하겠는데, 고택의 대청마루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점심은 영 서먹했다. 오후의 스케줄은 마당에서 춤 구경을 한다는 것이다. 수저를 얼른 놓고 슬그머니 일어나서 춤판이 벌어질 곳으로 갔다.

— 회화나무를 배경으로 자연이라는 아름다운 무대가 펼쳐져 있었다. 맨 앞 구석에 자리 잡고 앉아 보따리에서 스케치 노트를 꺼내 펼쳤다. 눈에 보이는 대로 고택도 그려보고 회화나무도 그리면서 손도 풀리고 움츠렸던 마음도 풀리기 시작했다. 가까이에서 춤 구

경을 해본 적이 없는 나에게는 맨 앞자리에서 보는 몸짓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춤추는 이의 진정성까지 전해졌다. 바람에 실려서 풍경 소리가 들려오고, 회화나무에 달려있는 한 쌍의 오리가 다정스럽다. 또 겹겹이 입은 금박이 박힌 치마 자락에서 세월까지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춤 동작 하나하나를 눈으로 쫓아가면서 장단에 맞추어서 내 손도 '얼썩~~'를 하고 있었다.

_ 고택의 주인인 춘추민속관 관장이 곱게 한복을 차려 입고 '양반춤'을 추었다. 대청마루에서 "여기 밥이 모자란다. 술이 모자란다. 많이 드세요."를 외치던 그분이 한복 자락을 펼치면서 조선 시대 한량으로 돌아간 것이다. 여가문화라면서 이해관계 없이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보여주는 관객만 있으면 한바탕 놀아본단다. "와~ 멋지다!! 어~얼썩~~"

_ 얼마 후 도자공방에서 전기 가마에 짝 차도록 커다란 화로 모양 항아리를 만들었다. 무엇을 그려 넣을까 계속 생각하다가 '어얼썩' 하면서 그렸던 스케치 노트를 폈다. 화장토를 바르고 붓 뒷 쪽지로 고택과 회화나무도 그려 넣으면서 그 날의 느낌을 되살린다. 내가 좋아하는 초록색 진수풀유를 듬뿍 바르고 빈 곳엔 재유를 바르고 색칠한 곳엔 투명유를 발랐다.



단풍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여름 내내 물옥잠을 키워 낸 물확의 물을 빼내고 폐지카의 재를 채워 넣은 후, 타고 남은 숯을 담아서 화로로 써야겠다. 작업실 창 밖에 흰 눈이 내리면 화로를 끼고 앉아서, 지난 봄날 자연 속에서 도포자락 휘날리며 멋들어지게 추던 그 춤사위를 그리워하겠지. 🍁



넝쿨 채 굴러온 행운

글 김소미 _ 회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나는 친구 따라 박물관에 갔다, 11년 전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박물관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야 말로 내겐 넝쿨 채 굴러온 행운이었다. 평소에 미술관이나 박물관 관람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나는 친구와 함께 박물관회의 특설강좌에 다니기 시작했다

남들이 보기엔 '강좌듣기'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하겠지만 나로서는 정말 큰 결정이었다. 친구들에게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만 아이를 키운다는 타박을 듣고 있었다. '아이들 옆엔 꼭 엄마가 있어야 하고, 특히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왔을 땐 꼭 엄마가 아이를 맞아 줘야한다'는 철칙 아닌 철칙을 굳게 지키고 있었기에 아이보다 늦게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건 엄청나게 큰 고민거리였다. 그것이 단지 일주일에 한 번 뿐이라 하더라도. 하지만 한 번 빠진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더니... 마치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 간 듯 친구와 함께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듣는 즐거움과 강의실 앞에서 한 잔의 커피와 함께 잠깐씩 떠는 수다의 즐거움이란~~~. 어디 그뿐이던가. 교수님과 함께 떠나는 유적 답사는 아이들 없이 나만이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직도 친구와 같이 갔던 첫 답사가 생각난다. 그 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 특히 서산 마애삼존불에 도착했을 때에는 어찌나 비가 많이 왔던지 삼존불을 보러 올라가는 돌계단이 마치 작은 계단식 폭포 같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빠짐 없이 우산을 들고 폭포 같은 계단을 올라가 삼존불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는 회원들의 열정이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그렇다면 해외답사는 어떠했던가? 박물관회의 해외답사는 그동안 다녀왔던 해외 여행과는 너무 달랐다. 몇 번의 해외답사를 통해 느낀 점은 힘은 좀 들지만 정말 알찬 답사라는 점이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빠듯한 일정으로 많은 박물관들과 유적들을 다니다보면 짜여진 시간 안에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려고 노력한 것이 곳곳에서 느껴지기 때문이다. 꼭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었기에 열심히 쫓아 다녔던 기억이 새록새록 하다.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풍경을 즐기며 박물관을 오가다보니 한 해가 화살같이 지나가버린 듯 했다. 더 일찍 시작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폭풍같이 밀려올 지경이었다.

그렇게 첫 해가 지나가고, 연구강좌를 수강할 때, 교육봉사자 모집공고가 났고 곧 바로 친구와 나는 자원 봉사자를 지원했다. 함께 듣는 강좌도 재미있었지만 다른 수업시간에 조금 일찍 나가서 회원들에게 반가운 인사와 함께 교재를 나눠 주는 일도 무척이나 새로웠다. 그래도 연말만 되면 내년엔 그만둘까 하다가도 이렇게 오랜 동안 연구강좌를 수강하며 교육봉사를 하는 것은 멋진 박물관 회원들과의 만남 때문이다. 건네는 나의 인사보다 더 크게 반가워하며 인사해주는 분, 가끔씩 수고한다며 비타민이나 초콜릿을 건네주는 분, 멋지다는 나의 감탄에 다음 시간에 그 멋진 매듭장식을 봉투 채 건네주는 회원들이 있기에 내년에도 또 수업 전에 인사와 함께 교재를 나눠주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강의시간 중에 삼가 줘으면 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전화받기 _ 아무리 고개를 숙여도 말소리는 다 들린다. 어떨 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도 있다. 사탕 까먹기 _ 아무리 살짝 까려고 노력해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강의실에 너무 크게 들린다. 꼭 먹어야 한다면 강의시간 전에 미리 껍질을 벗겨 놓으면 좋을 듯하다. 강의시간 중에 사진 찍기 _ 강사와 그리고 수강하는 모든 회원에게 큰 실례가 된다. 수업 중에 조용하기 _ 일부 회원이 여러 해 수강하다 보니 강의내용에 일일이 토를 달아 수업 분위기에 방해가 된다. 마지막으로 도강하기 _ 수강료를 내는 회원들에게 민폐이다. 박물관엔 박물관회의 연구강좌 외에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많이 있다. 이런 일들만 삼가한다면 강의를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교육봉사를 시작으로 박물관 유물해설 봉사도 하게 되었다. 사실 박물관에서의 유물해설은 외국의 유명 박물관에 갈 때마다 눈여겨 봐왔던 일이었다. 그러니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유물해설을 통해 조금 더 쉽고 편하게 관람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내겐 무척이나 보람 있고 즐거운 일이다. 이제 박물관은 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일상이 되었다. 보람과 즐거움을 함께 주는 박물관, 내겐 넉넉 채 굴러온 행운이 아닐 수 없다. 🍀



서암정사와 사성암

단풍이 곱게 물드는 가을, 오래간만에 길을 나섰다. 비록 짧은 하룻길이어도 떠나는 설렘으로 발걸음은 가벼웠다. 일곱 선녀가 옷이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놀았다는 지리산 칠선계곡으로 들어섰다. 한국불교의 선사들을 많이 배출했다는 고찰 벽송사 입구, 양 갈래 길에서 이름도 살짝 낯선 서암정사를 만났다.

원편으로 조금은 경사진 길을 오르니 일주문을 대신하듯 하늘을 향해 두 개의 비석이 솟구치듯 서 있다. 이번엔 돌계단이 눈을 가로막나 했더니 양쪽 바위에 익숙한 분들이 있다. 흔히 마주치는 목조상이 아니라 바위벽을 배경으로 뛰쳐나올 듯 서 있는 천왕들이다. 아! 이곳은 석굴 부처가 유명하다고 하더니, 석굴법당으로 향할 때 까지만 해도 그냥 부처님 한 분 계시겠지 했다. 그런데 법당 안에는 삼존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대웅전이나 극락보전에 있는 부처님과 시위보살·지장보살·시왕·신장·나한 등 모든 구성이 갖추어져 있다. 넓지 않은 석굴 안에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본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에게 인사하고 내려가니 아래쪽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섬세하면서도 웅장해 보이는 조각들이 진정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만지지 마세요’ 라는 글귀가 없다면 한 번쯤은 손으로 만지고 싶어지는 조각들이다. 기둥마다 새겨진 십대 제자상과 각각의 도상들을 한참 바라보고 싶었으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산 중턱에 있는 산신각을 찾아 나섰다. 절의 가장 위쪽인 산신각에서 지리산의 경치를 내려다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멀지는 않지만 적당히 굽어진 길을 올라 주산신전이라는 돌문을 지났다. 금방이라도 ‘어흥’ 하고 튀어나올 듯한 호랑이를 옆에 둔 산신이 비로전을 侍衛하듯 서편을 보고 앉아있다. 이 또한 석조 부조로 바위에 새겨져 있었으니 그야말로 서암정사는 바위에 새겨진 부처님 세상이구나 싶었다.

비로전에서 양 옆 보살과 가운데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돌아섰다. 다만 부처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생각하며 넓은 산자락, 끝도 보이지 않은 세상을 가늠해보았다. 그러나 아는 것이 적은 지라, 그저 마냥 감탄만 하다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가운데 부처님이라 생각했던 인물은 부처님이 아니다. 어? 두 손 곱게 모은 동자상이다. 분명 비로전이라 했는데, 이상하다 하며 고개 들어 보니 바위가 두 개이다. 일부러 겹쳐 놓은 듯 이층으로 놓여진 바위들 중 위쪽에서 진리의 부처님이 서편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래 바위에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조용히 그러나 위엄있게 부처님을 호위하고 있다. 처음 주불 자리라 생각 했던 그 곳에는 선재동자가 합장한 채 진리의 법을 구하고 있었다.

웅장하고 화려했던 석굴법당도 멋있었지만, 그야말로 자연 속에서 진리의 화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부처님을 보니, 저절로 경외의 마음과 함께 욕심들이 다 부질없어진다. 부처님의 큰 법력을 배우고 싶어지니 자연히 머리가 숙여진다. 그 곳에 오래 머물며 부처님께 마음의 법을 구하고 싶었으나 사성암을 향해 길을 서둘러야 했기에 아쉬움을 두고 서암정사를 떠났다.

지리산을 넘어 구례 사성암을 찾았을 때는 어느덧 해질 녘이었다. 꼬불꼬불 경사진 길을 덜컹거리면서 올라보니 저 멀리 깎아지른 절벽 위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건물이 보인다. 우와, 절벽에 이렇게 멋진 건물이? 주위풍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서 있는 전각이 사성암의 대표 건물이다. 전각에 들어서니 생각보다 아담한 내부에 불단 쪽의 유리창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불단에는 생각보다 작은 불상들이 있어 이상하다 싶었다. 부처님이 유리창 바깥 쪽 석벽에서 어리석은 중생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연기 선사가 세우고 원효, 도선, 진각, 의상 스님이 수도하였다 하여 사성암이라 전해진다. 이곳에도 벽에 새겨진 불상이 있었다. 서암정사처럼 웅장하지는 않지만 그 온화한 미소만으로도 중생을 모두 품어 안을 것 같다. 해질녘이라서 그랬을까? 부처님의 미소가 더 온화하게 느껴진 이유는.

01. 04. 사성암,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33호, 전남 구례군

02. 사성암 도선굴

03. 서암정사 비로자나불, 경상남도 함양군





_ 손에 찻잔을 들고 있는 듯한 약사여래불, 그 미소는 우리의 지친 마음을 보듬어 주는 듯했다. 원효대사가 수도하면서 친견한 부처님을 벽에 새겼다는 전설이 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도 어찌랴 싶다. 불심 깊은 누군가의 손을 빌려 부처님이 모습을 나타낸 것 일 터이다. 지금도 오르기 쉽지 않은 이곳에서 옛 스님들은 오직 진리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공부하였겠지? 그 정성이 지극하여 큰 깨달음을 이루었으리라. 전각을 나와 멀리 섬진강과 구례 넓은 들녘을 내려다보고 감탄하다가 갑자기 부처님께 죄송해졌다. 이 경치를 부처님은 못 보겠구나.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지어놓은 전각 안에 갇혀있는 듯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각의 아름다움에 충분히 감탄했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또 어떤 모습일까? 아마 오전에 본 서암정사의 비로자나불 생각에 더 그런 것은 아닐지...

_ 짧은 하루 동안 지리산 이쪽 저쪽에서 천년 가까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마애불과 이제 세상과 만난지 얼마 안된 부처님들을 뵈고 왔다. 마치 이 시대와 오래전 시대를 여행하듯이. 아직은 오래된 소박함을 뛰어넘기에 부족하고 욕심 많은 현재를 느끼게 하는 여행이었다.

_ 박물관에 다니고 배우면서, 또 이곳저곳 답사를 하면서 우리 문화유산에서 옛 선인들의 지혜와 미감을 보았다. 그것에 감탄하다가도 가끔은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물들이 그 아름다움을 살리기는커녕 해치고 있는 현실이 아쉽기도 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후손들이 대단하다 할 만한 것이 있을까? 감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시대의 미감을 알려 줄만한 것이 얼마나 될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요즘의 답사 길이었는데 이번 서암정사를 다녀오면서 모처럼 기분이 좋았다. 세월이 지나면 자연과 어우러져 우리시대의 아름다움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발걸음이 될 것 같다. 🍁

2013년도 국립중앙박물관회 특설강좌 37기 수강생 모집

36년간 개설되어 온 국립중앙박물관회 특설강좌는
전문 강사진에게서 우리 역사와 예술을 배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강좌입니다.

모집대상 : 문화에 대해 관심있는 누구나

신청기간 : 2013년 1월 9일부터 접수

신청방법 :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국립중앙박물관회 (현장접수)

또는 www.mumes.org (인터넷접수)

신청서류 : 수강신청서(현장배부), 반명함판 사진 2매

교육회비 : 480,000원

모집인원 : 화요일 200명, 목요일 200명

수강기간 : 2013년 3월~12월 (매주 1회, 13:00~17:00)

수강과목 : 한국고대사, 고려시대사, 조선시대사, 삼국사기, 삼국유사

인류와 문화, 비교문화론, 형질인류학

고고학개론, 구석기문화, 신석기문화, 청동기문화, 철기문화

낙랑문화, 고구려문화, 백제문화, 신라문화, 가야문화,

발해문화, 몽골문화, 중국고대문화, 일본고대문화

중앙아시아미술, 동남아시아문화

중국도자, 고려자기, 분청사기, 조선백자

중국회화, 조선전기회화, 조선후기회화, 한국풍속화, 한국불화, 한국근현대미술

인도불교조각, 중국불교조각, 불교금속공예, 석조미술

한국고건축, 한국외전, 한국목공예, 한국복식, 한국음식, 한국고지도, 한국조경

한국음악, 한국금석문, 한국고인쇄, 한글, 한국서예

종교문화, 불교사상, 유교사상

보존과학, 한국과학사, 세계의 박물관

고적답사 : 4월 공주지역, 5월 부여지역, 6월 익산지역, 9월 충주지역, 10월 강화지역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140-026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회
전화 : 02. 2077. 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국립중앙박물관회 후원하기 안내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보다 손쉬운 참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 홈페이지 www.mumes.org 로 접속 화면상단 **후원하기** 클릭



문화의 힘으로 국격을 높이는 일,
인류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후대에 전하는 일,
그 뒤에는 문화예술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俞相玉, 柳昌宗 회장을 거쳐 2011년 11월 金正泰 회장이 취임했다

會長 | 金正泰
 副會長 | 申聖秀 洪錫肇
 理事 | 金英那 金信韓 金斗植 南秀淨
 朴殷寬 尹碩敏 尹在倫 李健茂
 李圭植 許榕秀 洪政旭 禹燦奎
 監事 | 金義炯 金教台
 事務局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여원, 청룡 오십여원, 백호 삼십여원, 주작 십여원, 현무 오여원, 천마 일여원, 금관 오천만원, 은관 삼천만원, 청자 일천만원, 백자 오백만원, 수정 이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천마회원

하나은행 金正泰
 千信一 세종옛돌박물관장
 孫昌根 소장가
 尹章燮 호림박물관 이사장
 SK에너지 申惠澈
 尹碩敏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금관회원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팬택&큐리텔 朴炳燁
 (주)한섬 鄭在鳳
 (주)STX 姜德壽
 朴容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鄭明勳 서울시향 고문
 權俊一, 具在善 Actium 부회장
 庚園 광제사 주지
 鄭溶鎭 신세계 부회장
 都炯泰 깔러리현대 부사장
 朴殷寬 (주)시몬느 회장
 申聖秀 고려산업(주) 회장
 洪錫肇 (주)BGF리테일 회장
 李垞昊 휴빅 대표

은관회원

柳昌宗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金鍾漢 (주)종합전기대표
 成弼鎬 광성기업대표
 徐載亮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柳芳熙 (주)풍산주택회장
 南秀淨 (주)선앳푸드 대표
 許榕秀 (주)GS홀딩스 전무

金寧明 (재)예을 이사
 趙顯相 효성그룹 부사장
 최철원 M&M(주) 사장
 洪政旭 (주)헤럴드 회장
 金信韓 대성 부사장
 金承謙 (주)서릉통상 부사장
 李明姬 일우재단 이사장
 姜院基 오리는 대표
 李圭植 경신금융 대표
 尹在倫 서울대학교 교수

청자회원

金芝延 (주)컨셉 대표
 申硯均 아름지기 이사장
 朴仙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田永采 한길봉사회 이사장
 金永瓚 김&장 법률사무소
 玄明官 일진홀딩스(주) 대표
 許正錫 OCI 부사장
 李宇鉉 스무디즈 코리아(주) 대표
 金性完 수원대학교 이사장
 李仁洙 변호사
 金榮秀 호성흥업회장
 胡鍾一 성암고서박물관장
 趙炳舜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慎昌宰 남양유업 전문위원
 李雲卿 제일화재 이사장
 金英惠 삼표산업
 李美淑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鄭在昊 열화당 대표
 李起雄 법무법인 세종 대표
 李永茂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辛炳讚 성곡미술관 이사
 辛炳讚
 朴載蓮
 李鈴子
 朴海春
 金宗學 서양화가
 韓國도로공사 柳徹浩
 玄智皓 (주)화승 부회장
 金南延 동훈다앤아이 대표
 金寧慈 (재)예을 이사장
 金正宙 (주)NXC 대표이사
 梁汰會 (주)비상교육 대표
 丁恩美 종로편입아카데미 대표
 鄭義宣 현대자동차 부회장
 崔惠玉 회원·자원봉사
 洪誠杓 고려상사(주) 부회장
 崔世勳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朴世昌 금호타이어 부사장
 崔杜準 (주)동남유화 대표이사
 李海珍 NHN(주) 이사회회장
 金澤辰 (주)엔씨소프트 대표
 李善眞 목금토갤러리 관장
 洋賢財團 대한전선 사장
 薛允碩 한국미술협회회원
 李英純 재미교포
 朴正遠 서울가든호텔 부사장
 李教祥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金載烈 한국고미술자기연구소
 金仁順

梁洪碩 대신증권(주) 부사장
 朴禎原 두산산업차량(주) 부사장
 朴知原 두산중공업 부회장
 曹在顯 경기도 문화의전당 이사장
 曹榮美 (주)KPE 전무
 金世淵 통일고무벨트(주) 부회장
 金兌炫 성신양회(주) 부사장
 Joseph Bae KKR Asia 대표
 具本商 LIG 넥스원(주) 부회장
 朴善正 대선제분(주) 상무
 金裕錫 행남자기대표이사총괄사장
 咸泳俊 (주)오투기 회장
 金載勳 영풍제약 부사장
 高基瑛 (주)금비 사장
 尹賢慶 동화약품 이사
 韓榮宰 노루홀딩스 회장
 崔仁善 회원
 吳勝敏 통일산업(주) 부사장
 許允秀 (주)ALTO(주)ALITEK 부사장
 俞承燾 코아나화장박물관 부관장
 李宰旭 (주)대주기공 사장
 李萬圭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趙希卿 광주요그룹 이사
 朴宣注 영은미술관 관장
 尹寬 BlueRun Ventures 대표
 林鍾勳 한미약품 상무이사
 柳智勳 영남제분 부사장
 李濬宇 흥아해운 상무
 楊仁集 진로재팬 대표
 尹勝鉉 (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吳治勳 대한제강 부사장
 李學俊 서울옥션 대표
 李芝衡 변호사
 金性南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金英姬 강좌 수료생
 金京姬 (주)피오나조경 대표이사
 韓惠舟 화장박물관 관장
 柳英芝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李胤基 그랜드힐튼호텔 사장
 崔再源 SK부회장
 李甲宰 삼일회계법인 전무
 姜承模 한국석유그룹 사장
 全載範 금강공업 부사장
 金斗植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成來恩 영원무역 이사
 成來恩 매경미디어그룹 상무이사
 張升準 이테크건설 상무
 李宇成 GS건설 상무
 許允烘 근화제약 대표
 張仁宇 신원 부회장
 朴廷彬 LS-Nikko 동제련 이사
 具本赫 학교재 대표
 禹燦奎 회원
 徐東姪 삼정회계법인 대표
 金教台 성문출판사 대표
 宋哲 천일식품 대표
 千碩圭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